회화에 표현된 한국전통 복색(服色)의 배색특성에 관한 연구

이 미 경*(이화여자대학교 색채디자인연구소)
김 혜 연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교수)

조선시대 후반부 단원과 혜원 중심의 풍속화에 나타난 전통복식의 배색 특성과 색채의 조화를 이루는 개념과 구조를 고찰한 본 연구는 풍속화에 나타난 복색(服色)의 특징을 당시대의 색채관과 서구의 색채관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실증적인 내용을 토대로 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후반부의 사회·문화·사상적 배경과 결부된 전통복식 배색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연구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서 영·정조시대는 한국적 미의식의 국속화 성향이 복식·회화 등의 영역에서 성립된 시기이다. 따라서 당대의 풍속화 47점을 선정하였고 회화에 표현된 인물 124명의 복색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색채와 배색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색채 분석 도구로는 자연색 체계(Natural Color System)를 활용하였고, 복색의 측정값을 색좌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양의 음양오행설(상생·상극)과 서구의 파버 비렌(Faber Birren)이 제시한 배색원리를 적용하여 연구·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통복색을 백(白), 흑(黑), 황(黃), 적(赤), 자(紫), 청(靑), 녹(綠)색계열로 분류하여, 그 빈도수와 색의 특성을 고찰한 결과 남·녀복색 특성의 차이가 분명하였으며, 공통점으로서 백색계열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백색 다음으로 집계된 색채는 여복의 청색계열, 남복의 황색·청색계열로서 이는 고명도의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백색에 청·황색기미가 조금 첨가된 백색계열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의 백색은 약간의 유채기미가 보이는 tint 계열의 색상으로 정량적인 백색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소색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색상특성은 각 계열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고명도·저채도 중심으로 황색계열과 청색계열은 고명도 위주의 분포특성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적색계열은 비교적 색조의 영역이 넓었으며 고채도의 분포특성이 두드러졌다. 자색계열은 저명도·중채도, 녹색계열은 고명도·저채도 중심이었다.

남·녀복의 색조유형으로서 여복에서는 white보다는 tone 중심의 색조특성이 나타났으며, 남복에서는 white를 제외한 tint의 색조유형이 많았다.

이는 당시대인의 백색지향 의식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음양오행론의 배색원리에 의해 검토한 결과 여복은 상생이 남복보다 낮게 집계되었으며, 반대로 파버 비렌의 색채조화의 배색원리에 의한 검토 결과는 남복보다 여복의 적용수치가 높았다. 이것은 감각적인 색채조화 보다는 의례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남복이 서구의 색채조화의 척도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로 추측된다.

전통복의 배색특성은 남녀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복의 기본 복식구조인 저고리/치마는 백/청색계열, 백/황색계열과의 배색이 중심으로서 면적대비 및 명도대비에 의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저고리의 배색은 유채색과 백색계열의 배색으로 채도대비의 성향이 강했다.

남복은 황/백색계열, 백/청색계열로 명도의 차가 크지 않았다. 포/띠의 의복 구성에 있어서는 흑색 또는 적·자색 등의 세조대(細條帶)로 인해 채도대비, 면적대비, 명도대비의 배색효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한 한국인의 색사용의 특징은 복식의 전면에 등장하는 백색지향과 음양오행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백색위주의 색사용은 인공미가 배제된 자연미의 추구에 기인한 것으로 토

착화된 한국의 색으로 볼 수 있다. 백색은 여러 색을 통합하고 배색된 색채들을 담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한국전통 복식의 배색특성을 주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회화자료를 근거한 것으로 풍속화의 변색 및 탈색에 의해 당시대의 정확한 색채규명이 어려우며, 실물작품이 아닌 도판을 통한 측색으로 색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언급하고자 한다.